

‘젠더’와 트랜스섹슈얼리즘:

성전환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인류학에 대한 성전환적 연구

이강원*

1. 들어가며: 젠더 연구는 테크노-포비아(techno-phobia)에서 벗어났는가?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를 포함하는 주변적 존재를 가부장적 서구과학의 재현 속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해러웨이(Dona Haraway)는 1985년 ‘사이보그 선언문’(Cyborg Manifesto)(Haraway 1991: 14-181)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해러웨이는 여성 연구자들이 ‘테크노포비아’에 갇혀서 젠더(gender)와 짝을 이루고 있는 섹스(sex)를 연구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잃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기술을 매개로 해서 재구성되고 있는 성, 몸, 모성, 자연을 여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전략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러웨이 자신이 순수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한 여성, 즉 ‘여신’이 되기를 거부했고 사이보그라는 분석적 상상력을 통해서 순수함이 아니라 혼종성을 통해서 정치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녀의 선언에 발맞추어서 1990년대 이후 인류학계에는 ‘사이보그 인류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연구들이 등장했다(Downey & Dumit 1997). ‘사이보그 인류학’은 초음파검사와 양수검사를 받는 여성(Rapp 1997, 2000), 유방암 퇴치를 위해 인간의 유방인자를 부여받은 실험쥐(Oncomouse)(Haraway 1997), 두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를 받는 범죄자(Dumit 1997, 2004), 자연사 박물관의 고릴라 박제(Haraway 1989)의 주체성 혹은 객체성의 기술-사회적 구성을 다루었다. 사이보그 인류학의 전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여성을 비롯한 주변적 존재들이 기술과의 접촉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방식의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생물/문화의 이분법에서는 재현되기 힘들었던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기계-인간 연합으로서의 ‘사이보그’라는 이름은 이러한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¹⁾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전환자, 특히 트랜스섹슈얼²⁾ 의료기술과의 접촉을 통해서 재구성된 ‘사이보그적 섹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체들이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섹스는 이 ‘사이보그적 섹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필자는 섹스 그 자체가 문제시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생물학적 결정론과의 투쟁 속에서 관심을 얻어왔던 ‘젠더’라는 말이 성

-
- 1) ‘사이보그’와 마찬가지로 생물과 문화, 기계와 인간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이르는 말로, ‘잡종’(hybrid)(Latour 1993: 10), ‘괴물’(monsters)(Law 1991)과 같은 말들이 있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대안적인 전략을 찾아나서는 주체성을 드러내기에는 ‘사이보그’가 적합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 2) 다른 섹스의 성기 혹은 두 섹스의 모든 성기를 갖기 위해 외과적 수술 및 호르몬을 사용해서 남성이 여성으로 혹은 여성이 남성으로 또는 두 성 모두로 변환된 사람들을 트랜스섹슈얼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트랜스섹슈얼과 트랜스젠더를 합해서 대개 트랜스젠더라고 불리고 있다.

전환자의 다양한 존재방식을 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인류학자는 성전환자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불러야 할지, 그리고 젠더 개념으로 성전환자의 ‘사이보그적 섹스’를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³⁾ 생물/문화 이분법의 틀에서 ‘젠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젠더’라는 말은 기술과 접속된 다양한 섹스의 연행을 인류학자가 재현 혹은 대변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두 가지 주장을 병행한다. 첫째, 인류학자는 의료기술과의 접속을 통해 성적정체성을 연행하는 성전환자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성전환자들은 그녀가 문화주의자인지 자연주의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성전환자들의 다중적인 존재방식들은 생물/문화 이분법에 따라 구별되는 제도적 공간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그래서 성전환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도 성전환자들이 거쳐 간 진료실, 수술실 그리고 실험실을 가로질러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물질을 배제하지 말고 성전환자가 정체성을 연행하는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성전환자를 분석하는 용어로서 ‘젠더’의 기원을 분석하고 이 용어가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들을 가리기 때문에 성전환자를 분석하는 용어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젠더’라는 말로, 즉 ‘트랜스젠더’로 성전환자를 언급하는 경우, 인류학자는 성전환자가 기술과의 접속을 통해서 물질적·사회적 차이들을 생산하는 과정을 여과(filtering)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는 스스로가 생물/문화 이분법을 통해 제도화된 분과(discipline)에 속해 있다. 그리고

3) 트랜스젠더리즘은 서구 밖에서 발견된 트랜스젠더인 *berdache*, *bapok*, *pondan*, *nat kdaw*, *bissu*, *sida-sida*, *waria*(Boellstorff 2004), 여자 같은 남자아이(sissies), 남자 같은 여자아이(tomboy)(Blackwood 2006), 여장 남자(drag queen), 히즈라(hijra)(Williams 1992), 남녀 양성자(hermaphrodite)(Herd 1990) 그리고 네덜란드의 여성 동성애자(sapphist), 영국의 남색(sodomite)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분법을 통해서 규율된(disciplined) 주체이기도 하다. 인류학자가 성전환 연구에 ‘젠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류학자는 자신이 사이보그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이보그적인 성전환자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재현할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의 ‘학습’과 현지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관계적 지식”(Hastrup 2004)으로서의 인류학은 성전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제도적 학문분과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연구 대상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인류학의 민족지 방법은 성전환 연구에 더 이상 생물/문화 이분법이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필자는 ‘성전환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동시에 ‘인류학에 대한 성전환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2. 성전환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성전환자의 존재는 젠더 개념과 섹스 개념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각각의 개념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달리한다. 성전환에 대한 인류학 연구들을 리뷰함으로써 트랜스젠더리즘과 트랜스섹슈얼리즘의 ‘명암’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아래의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인 차이와 생물학적 결정론을 해체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생물과 문화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전제하고 있는 섹스/젠더의 이분법에 기대어 대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섹스의 다중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트랜스섹슈얼리즘은 기술과의 접촉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섹스의 재구성성을 추적함으로써 젠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성전환자가 연행하는 정체성의 다중

성을 보여준다. 후자에서 ‘젠더’는 섹스와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트랜스섹슈얼이 자신의 정체성 혹은 집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1) ‘트랜스젠더’가 보여주는 것: 젠더의 다중성

트랜스젠더리즘은 여/남 혹은 여성/남성/양성으로 구분되는 2원론적 혹은 3원론적 섹스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젠더가 존재하거나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젠더는 더 이상 섹스의 기표(signifier)가 아니며, 서로 다른 젠더 기호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젠더의 다양성이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리즘 이전의 젠더연구는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었을까. 그 예로서 “제3의 섹스/제3의 젠더”란 용어를 사용해서 “이 원론적인 사고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주장했던 허트의 연구가 있다 (Herdt ed. 1994). 생물학에서 “도미니크 공화국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5-알파 환원 효소 결핍(5-alpha reductase deficiency)은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이 되는 신진대사를 손상시킨다. DHT는 태아기의 외부생식기를 남성화하는 것이어서, 스테로이드 5-알파 환원효소가 결핍된 태아는 클리토리스를 닮은 페니스를 가진, 성적으로 애매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는 도미니크 공화국에서 여성으로 양육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유전적으로 정상적인 남성이기 때문에 사춘기에 다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사춘기 이후, 목소리, 근육, 성기의 남성화가 뚜렷이 진행된다.

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생물학자들과 허트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생물학자들은 도미니카 공화국 신드롬을 보이는 사람이 사춘기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양육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테

스토스테론으로 인해서 다시 남성의 모습을 보이고 여성과 성교를 하며 결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생물학적인 섹스가 젠더의 사회화에 대해 우위에 선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허트는 생물학자들의 환원론이 탈맥락화된 사례들로부터 도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도미니크 공화국에서는 양성자들을 지칭하는 *퀘브도쉬(guevedoche)*라는 용어가 있고, 이 용어가 일종의 문화적 범주로서 제 3의 성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허트에 따르면, 사례를 수집했던 의료 팀이 서구 의학의 2성적 섹스 모델을 당연시했기 때문에 면담자들이 *퀘브도쉬*를 남녀 한쪽의 성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Herdt 1990). 허트는 스톨러와 함께 조사한 뉴기니아의 삼비아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도미니크 공화국 이외에서도 사회화 과정이 3성 모델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삼비아인들에게서 소년과 소녀 그리고 *켈루-앗뵐(kwolu-aatmwol)*의 통과례가 각기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켈루-앗뵐*에게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이전에 다른 소년들과 같이 해왔던 사춘기 의례를 달리 하게 되는 사회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성이 사회적 위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남성적 성징이 나타난 후에 이들이 남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선택하고 체득하게 되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Herdt & Stoller 1985). 허트의 결론은 문화적 관념으로서 세 번째 성이 자연의 질서에 투사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사회·문화적인 범주가 서구의 2성 모델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남녀의 생물학적 결정론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남녀 밖에 또 다른 섹스를 찾는 데 그치고 말았다. 여러 지역에서 ‘n번째의 성’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와 범주들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 범주의 근거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 성이라는 점에서 젠더는 여전히 섹스의 기표에 머무르고 있다. 젠더 개념

을 섹스 환원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의 섹스에 다중적인 젠더가 연행되던가, 상이한 섹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젠더를 가진 트랜스젠더들의 존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섹스와 무관하게 젠더를 다중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문화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다양성과 역사적인 변화를 제시하는 쪽으로 트랜스젠더리즘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생물학적인 섹스 결정론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펠레츠(Michael G. Peletz)는 트랜스젠더리즘의 시각에서 여성의 복장을 하고 동성애를 하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의례 전문가들에게 주어진 정당성의 부침에 대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트랜스젠더의 패턴은 식민지 이전, 식민지 시기, 탈식민 시기의 국가 정책, 경제 및 종교의 역사에 따라 변형되어 왔다. 그의 주장은 동남아시아에서 젠더의 다양성이 전시기에 걸쳐 지속되어 왔더라도, 트랜스젠더에게 정당성이 부여되는 정도에 따라 ‘젠더 다원주의’가 유지되었던 시기와 그렇지 못했던 시기가 구분된다는 점이다. 식민지기 이전의 트랜스젠더 의례 전문가였던 말레이시아의 시다-시다(*sida-sida*), 남부 슬라웨시의 부기스인의 비썬(*bissu*) 등은, 신성한 왕권과 지배자의 영혼을 보유한 자로서 사회와 우주의 안녕을 위한 존재로 믿어져 왔다. 하지만, 17, 18세기 식민지 경험과 외래 종교들의 확산으로 인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절대주의, 관료주의를 통해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수니 이슬람, 테라바다 불교, 신유교주의 그리고 이베리아식 카톨릭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남성 지향적인 법 제도와 위계적인 세계 종교의 세계관이 전통적인 관습과 혼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트랜스젠더 의례전문가는 신성한 존재인 동시에 저속한 동성애자 및 복장도착자로 양가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정당성이 손상되고 위신이 하락했다. 20세기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는 남과 여를 위계화 하는 신유교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다원주의를 더욱 요원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미얀마에서 트랜스젠더 의례 전문가들(*nat kadaw*)이 여전히 존경을 받고 높은 위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 따른 트랜스젠더의 정당성이 변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펠레츠는 미얀마의 군부가 내부의 소수자, 민주주의 운동가 혹은 세계화의 압력에 대항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통문화’인 낫 카다우(*nat kadaw*)를 용인함으로써 정당성의 경합을 떠받치고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마하티르의 근대화가 진행된 말레이시아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결혼을 주관하는 폰단(*pondan*)과 같은 의례 전문가에게 상당히 관용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대에도 트랜스젠더 의례전문가의 사례는 싱가포르의 바푍(*bapok*), 인도네시아의 반씨/와리아(*banci/waria*)에서도 나타난다(Peletz 2006). 비록, 펠레츠의 연구가 특수한 트랜스젠더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트랜스젠더리즘에 포함된 모든 범주의 트랜스젠더들은 역사적/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정당성 혹은 가시성에 변화를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맥락, 혹은 지역적 맥락에 따라서 트랜스젠더들을 다루는 연구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문화적 범주와 사회적 지위를 정적인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의 실천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이러한 정적인 범주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젠더 정체성의 연행에 초점을 맞춘다. 근본적으로 결정된 본질적인 성은 없으며, 본질적인 젠더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젠더 정체성은 외관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행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⁴⁾ 이를 통해서, 집합이나 범주가 없는 ‘여성 없는 페미

4) 고프만은 “정체성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연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Goffman 1971[1959]). 행태주의 심리학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아가 무대와 같은 일상에서 사회적으로 재현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후에, 버틀러는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Butler 2006). 버틀러는 무대에서 공연 되는 것의 뒤쪽, 더 깊은 곳에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고프만의 전제를 거부한다. 버틀러에게는 정체성을 연행하기 위해서 무대와 같은 공적 장소나 무대 뒤 같은 사적 장소가 필요 없다.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실천 속에서 젠더가 연행된다.

니즘'의 가능성을, 자신 안에 타자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퀴어 이론'(Butler 2006)이 제시될 수 있었다. 트랜스젠더가 젠더 정체성을 연행하는 노정을 기술하는 것이 트랜스젠더리즘 연구 내에서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게이연구, 레즈비언 연구, 퀴어 연구와 같은 하위 분과들이 형성되었고(Rubin & Butler 1994), "퀴어 인류학"(Boellstorff 2007)의 이름으로 인류학에 소개되었다.

퀴어 인류학의 사례로, 보엘스토프(Tom Boellstorff)의 연구는 젠더들 간의 차이와 연행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섹스에서 분리된 트랜스젠더리즘적 시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의 여장 남성인 와리아(*waria*)는 남성이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으며 남자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은 국가와 화장실에서 독립적인 존재론적 지위를 얻지는 못했다. 대신, 화장과 실리콘 주사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투입을 통해 자신의 여성성을 연행함으로써 성 정체성을 찾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와리아에게 남성은 잊혀 지지 않고 출몰하는 유명과 같은 것으로 끝없이 따라다닌다. 화장과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시 남성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동시에, 화장실과 신분증이라는 또 다른 남성의 유명이 몸과 행동에 출몰하기 때문이다. 출몰하는 '남성적인 것'과 드러내기 위한 '여성적인 것'의 경합으로 인해서 와리아의 사례는 젠더 정체성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즉 와리아의 젠더는 'n번째 성'과 같은 지위나, 문화적으로 그 특성이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끊임없는 연행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누가 더 여성 같은지를 경합할 수 있는 와리아 컨테스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다(Boellstorff 2004).

이상에서 트랜스젠더리즘이 보여줄 수 있는 성전환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트랜스젠더리즘을 통해 성의 인류학이 얻은 것은 사회과학이 갖고 있던 '차이 만들기'의 특권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이다. 섹스의 기호였던 젠더를 섹스와는 상관없는 젠더들 간의 차이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오랫동안 투쟁해 왔던 생물학과 완벽하게 단절할 수 있게 되

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트랜스섹슈얼리즘이라는 삶의 방식은 이러한 성취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전의 ‘적’이었던 섹스가 성전환 기술을 통해서 젠더만큼이나 다중적인 차이를 연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성전환 기술과 트랜스섹슈얼: 섹스의 다중성

트랜스섹슈얼 역시 연행을 통해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시각이 젠더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예를 들어,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연구가 의학과 법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가부장적 전문가와 지식권력을 통해 트랜스섹슈얼의 젠더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소위키 1995), 그리고 사회 속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비딱한 정체성”(perverse identity)(루빈 2004)간의 괴리에 대한 연구가 푸코(1994)와 버틀러(2003)의 논의를 근간으로 해서 전개되어 왔다.

젠더 중심의 연구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트랜스섹슈얼은 기존의 전형적인 젠더시스템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심신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된다.⁵⁾ 즉 트랜스섹슈얼리즘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젠더문제로 환원된다. 그리고 섹스와 젠더의 모순적 관계에 빠져 있는 트랜스섹슈얼은 사회문화적 질서의 원리로서 젠더에 대한 지식·권력이 어떻게

5) 국제질병분류체계 상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은 얼마 전까지 트랜스섹슈얼리즘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DSM-IV)(Friedman & Spitzer 1976). 젠더 개념을 사용하는 문화연구 쪽에서도 트랜스섹슈얼이 젠더 정체성의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랜스섹슈얼을 병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DSM-V에서는 ‘젠더 주체성 장애’를 ‘젠더 위화감’으로 변경해서 트랜스젠더에게서 ‘장애’라는 분류를 없앴다. 질병 혹은 장애를 위화감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젠더 주체성에서 벗어나 있는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작동하고 있는지, 지배적 표상과 주변적 표상간의 경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인용된다.⁶⁾

둘째, 트랜스섹슈얼리즘은 전적으로 젠더 문제이기 때문에, 트랜스섹슈얼 주체성의 구성에 기술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하우스만(Bernice L. Hausman)의 비평에 따르면, 의료 기술과 공모한 가부장제가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착취하고 있다는 점을 여성주의 문화연구도 지적하고는 있지만, 기술을 ‘물질적 효과를 과잉 결정하는’ 이데올로기 시스템 안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물질을 논의에 끌어들이는다고 해도 문자 그대로의 물질이 아닌 물질성(materiality), 즉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결과물에 물질의 역할을 한정시킨다. 통치 ‘기술’ 혹은 젠더 ‘기술’과 같은 은유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의 기술과 물질을 배제하고 있다(Hausman 1995: 9-10). 그 결과, 젠더 연구는 ‘여성의 몸을 만드는 말 그대로의 기술’과 ‘담론과 관계된 기술’을 구분 한 다음에 후자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젠더 연구에서 사용되는 ‘젠더’라는 말이 그 기원에서부터 살펴보면, 의료 관계자들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성전환 기술의 발달에서 시작되었음이 드러난다. 트랜스섹슈얼리즘의 역사는 곧 젠더가 생산된 과정에 대한 역사이기도 하다. ‘젠더’라는 용어는 1950년대 중반 존 모니(John Money)와 존스홉킨스 병원의 동료들의 트랜스섹슈얼 시술의 프로토콜에 처음 등장했다. 자신이 동성애자가 될 것임을 부인하고 MTF(Man-to-Female) 시술을 했던 트랜스섹슈얼 아그네스(Agnes)의 사례를 계기로 외과의사와 임상사들은 ‘적절한’ 젠더 연행의 사회적 범주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성애 혐오적인

6) 한편,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남성지배적인 의료계에 의해 요리된 새로운 브랜드로서 속임수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이며 희생자로 규정하거나(Raymond 1979; Millot 1990), 남성적 의학기술에 의해서 전형적인 여성성에 부합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Yudkin 1978)으로 간주하는 연구들이 트랜스섹슈얼과 가부장적 의료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맞닿아 있다.

치료 프로토콜을 작성했다. 이로써 ‘젠더’는 내부의 성적 정체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연행을 의미하는 의학적 담론으로 처음 소개되었다(Denzin 1990).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전문가의 지식 생산이 트랜스섹슈얼리즘을 가능하게 했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트랜스섹슈얼리즘의 기술이 섹스와 대비되는 ‘젠더’라는 단어의 현대적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이르러 젠더는 페미니스트의 두 번째 물결을 통해 확산되고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젠더 연구자들에 의해서 훨씬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섹스-양성자-기술-프로토콜-트랜스섹슈얼-병원-의학-전문가-논문-페미니스트-미디어의 연합을 통해서 젠더가 섹스와 대비되는 현대의 용례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Hubschman 1999; Meyerowitz 2002; Kane-Demaio & Bullough eds. 2006). ‘젠더’라는 용어의 용례가 구성되는 과정을 추적해 본다면, 젠더의 구성에서 물질과 기술을 빼고 논의할 수 없다. ‘젠더’의 역사는 젠더를 섹스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기획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젠더의 차이와 역동성이 더 이상 섹스의 ‘일반성’과 ‘선천성’과 대조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해 졌다.

이러한 지적을 토대로 하우스만은 버틀러가 섹스/젠더 이분법을 비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버틀러의 시각에서 섹스는 젠더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에 젠더가 성적인 차이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범주이다. 젠더를 연행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킴으로써 섹스로 인한 차이는 재구성될 수 있게 된다(버틀러 2003). 하우스만은 버틀러가 젠더 개념이 형성된 역사와 특수한 조건에 대한 분석에 소홀했음을 지적하면서 섹스가 오히려 몸과 문화 모두를 지시하는 재현의 범주가 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오히려 젠더가 섹스라는 범주의 규제를 받는 특수한 종류의 범주로 재고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Hausman 1995: 179-181).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섹스와 젠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젠더’뿐만 아니라 섹스도 기술-사회 과정 속에서 행위자들에 의해 연행될 수 있다. 젠더 중심의 접근이 이러한 가능성들을 가려왔을 뿐이다. 트랜스섹슈얼들은 기술과 접촉을 통해서 물질들을 자신의 성 정체성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킨다. 기술의 차이, 기술을 통해서 동원되는 물질의 차이가 트랜스섹슈얼의 정체성을 다중화시킨다. 둘째, 트랜스섹슈얼은 섹스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전문가들 혹은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만들어온 ‘젠더’를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의 하나로 동원하고 있다. 아그네스는 트랜스섹슈얼 시술을 받기 위해 자신이 동성애자가 될 것을 부인하고 잠시나마 의료진이 원하는 젠더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동성애 혐오적인 의료기술을 전유하는 전략을 취했다. 셋째, 젠더는 섹스/젠더 이분법에서 섹스와 대비되는 범주라기보다는 섹스의 특수한 측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용어라는 점이다. 동성애 혐오적인 프로토콜을 만든 의료진 없이 ‘젠더’라는 말은 트랜스섹슈얼과 관련해서 존재할 수 없었다.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없었다면 ‘젠더’라는 말은 트랜스섹슈얼의 성적정체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활용될 수는 없었다. 결국, ‘젠더’는 전문가와 연구자의 발명품으로써 현대에 섹스를 연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허샤워(Hirschauer 1998)의 민족지는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섹스와 젠더의 재배치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트랜스섹슈얼의 시술과정은 섹스 역시 연행될 수 있으며, 섹스의 연행이 트랜스섹슈얼의 정체성의 연행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따로 ‘젠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정체성의 연행을 기술할 필요가 없음이 드러난다. 그는 정신의학자의 상담실, 내분비학자의 실험실, 외과의의 수술실을 옮겨 다니면서 각각의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에토스, 교육, 이론적 시각과 편견으로 섹스라는 대상이 연행되고 있음을 기술한다. 정신의학자는 트랜스섹슈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생애사와 성적정체성의 갈등을 기록하고 상담과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없애려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시술에 동의한다. 상담 전에 환자가 1년간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경험하도록 한 후에, 다른 성이 되고자 하는 것을 확신하는지 상담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개인사를 시술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재창조한다. 정신의학자 역시 환자의 이러한 내러티브의 전략을 알아차리고 있다. 그래서 상담의 진실성보다는 얼마나 트랜스섹슈얼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내분비학자의 실험실에서는 환자로부터 뽑아낸 성 호르몬의 수치를 조사한다. 내분비학자들은 호르몬 수치에 따라 남성, 여성, 병적 남성, 병적 여성 등으로 분류 프레임을 정하고 환자의 내분비학적 섹스를 결정하게 된다. 실험의 사례가 풍부한 실험실은 다른 내분비학 실험실에 분류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실험실 나름의 표준에 대한 경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뒷거래를 통해서 얻은 성 호르몬을 자신의 몸에 투입함으로써 시술에 부합되는 내분비학적 섹스를 연행하기도 한다. 즉 과학적 데이터보다 환자 자신의 연행이 실험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나타난다. 호르몬 시술을 통해서 점차 가슴이 작아지고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환자 스스로 주장하는 성과 타인의 시선을 통한 성간의 모순이 좁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기의 문제로 넘어간다. 외과의 수술실에는 비뇨기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함께 수술에 참여한다. 국부 마취를 통해, 수술부위만 보이게 하는 천을 통해 그리고 시술대상 사진을 통해 제거되어야할 성기는 몸으로부터 격리된다. 기존의 음경 조직은 클리토리스 성형에 사용된다. 신체의 다른 부분을 떼어 성기에 이식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스케줄, 전문의들 간의 전화통화, 회의, 역할 분담 등 전문가와 환자들이 함께 개입한다. 트랜스섹슈얼들이 일정 변경을 요구하거나, 다른 분야의 의사들 간의 소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성 호르몬을 구입하고 가슴 성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의 성전환 시술마다 트랜스섹슈얼

의 요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결합된다는 점에서 섹스도, 트랜스섹슈얼도, 의학적 실천도 선택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는 일관되게 보이는 의학과 섹스는 실천의 장에서 수없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더해, 섹스의 물질적 차이가 법적 차이로 이어짐으로써 트랜스섹슈얼이 경험하는 성의 다중성은 증폭된다. 독일에서 여성이 되고자 하는 트랜스섹슈얼은 성기를 제거하는 외과수술을 해야 법적으로 성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기를 갖고 있는 이상 법적으로 여성이 될 수 없다. 네덜란드의 법은 해부학적 요소보다는 개인의 생식능력을 법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 성기를 갖게 되더라도 여전히 법적인 여성으로 남게 된다. 남성의 경우 독일과 네덜란드 양쪽에서 출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성기를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남성이다(Hirschauer & Mol 1995). ‘트랜스섹슈얼’이라는 말은 이 다양한 영역과 실천들의 파편들을 ‘섹스’를 통해 연결하고 있다. ‘섹스의 기술적 구성’과 ‘섹스의 법적 구성’은 상이한 연구 분야로 분리되기보다는 각 트랜스섹슈얼의 사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됨으로써 트랜스섹슈얼의 정체성을 다중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신의학 전문가와 트랜스섹슈얼의 상담의 단계를 중점적으로 기술한 볼린(Anne Bolin)의 민족지는 트랜스섹슈얼이 시술의 요건에 맞는 개인사와 심리적 상태를 상담자 앞에서 연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능동적인 전략들과 상담자와 트랜스섹슈얼 간의 긴장감을 기술하고 있다(Bolin 1987). 민족지 기술은 트랜스섹슈얼들이 정신 불안 진단 및 통계 매뉴얼(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범주로서 표현되는 전형에 의해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트랜스섹슈얼들이 유명한 과학자가 저술한 젠더 불안(gender dysphoria)에 대해 독서하고 숙지함으로써 의학적 정신 건강의 기준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자신을 시술에 적절하도록 만드는 도식을 제공한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담자들이 기대한 것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상담자들의 기대와 그들의 목적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고전적인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개념에 순응하는 연행을 통해서 “부차적인 이득”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상담자들의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편견과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상담자와 고객과의 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이 트랜스섹슈얼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담자의 기대에 맞게 위조하도록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허샤워와 볼린의 연구에서 트랜스섹슈얼들의 미시적 전략들이 기술되어 있다면, 본인이 페미니스트 FTM인 칼리피아-라이스의 연구는 더욱 거시적이고 다면적인 트랜스섹슈얼리즘의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트랜스섹슈얼들이 지나가야 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트랜스섹슈얼리즘의 삶의 방식의 경험을 기술하고 트랜스섹슈얼들의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Califia-Rice 2003). 성전환 시술이 이루어지는 병원과 성 과학자들에 대한 논의, 페미니즘과 게이 공동체의 트랜스포비아, 트랜스섹슈얼의 결혼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트랜스섹슈얼리즘의 행동주의(activism)를 제시하고 있다. 트랜스섹슈얼리즘의 행동주의로서 칼리피아-라이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트랜스섹슈얼과 ‘정상인’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해서 트랜스섹슈얼의 소수자적 지위에서 기인한 낙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트랜스섹슈얼들의 해방과 권리 신장에 해로울 것이라는 점이다. 성클리닉, 페미니즘과 게이 공동체, 결혼과 법제도에 이르기까지 트랜스섹슈얼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칼리피아-라이스에 따르면, 과거 성클리닉의 시술에 감사했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 트랜스섹슈얼들은 성전환 수술의 문지기에게 해당되는 의학과 정신건강 전문의들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원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데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제 트랜스섹슈얼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갖춘 소비자가 되고 있으며, 의료 제공자를 통제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아진 FTM의 인구 덕분에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과 게이 공동체로부터의 배제에 대항할 수 있는 FTM 공동체를 가시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레즈비언 조직에 가입하려는 성전환 여성들의 시도가 정치화되고 있다. 트랜스섹슈얼 공동체의 증가는 여성 혹은 남성이 아닌 트랜스섹슈얼의 정체성을 갖고 오히려 남녀 이분적인 젠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해, 칼리피아-라이스는 양성애 공동체, S/M 공동체, 복장 도착 공동체 등 성 다원주의를 위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의료기술과, 법제도 그리고 사회의 공동체들이 트랜스섹슈얼의 욕구를 인식하고 그들의 상황에 조절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칼리피아-라이스가 주장하는 트랜스섹슈얼리즘의 행동주의이다.

이상의 민족지들을 통해서 필자는 트랜스섹슈얼리즘에 대한 연구들이 젠더 중심의 연구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과 기술 그리고 의학지식과 법제도를 능동적으로 전유함으로써 트랜스섹슈얼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지배적인 젠더 시스템과 자신의 생물학적 섹스 간의 괴리에 괴로워하기보다는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상담의와 거래를 하거나, 외과의와 타협을 통해서 법제도에 대한 탄원을 통해서 자신의 섹스를 구성해 나간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내분비학의 기술, 성기와 유방을 절제하고 접합하는 성형기술, 피부조직의 이식에 필요한 물질 및 기술들은 섹스를 구성할 수 있는 수많은 방식들을 가능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남녀의 전형적인 섹스에 들어맞지 않는 섹스와 몸의 구성이 의학기술-법제도-집단형성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유방을 갖고 있거나, 여성의 성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성의 성기를 접합한 쉬메일(Shemale)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34세의 토마스 비티는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했다. 수술 당시 생식기관까지 바꾸는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했다. ‘그’는 만삭의 몸으로 면도를 하고 있는 ‘임신한 남성’의 이미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The Advocate 2008). 비티의 사례가 남녀 젠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젠더 정체성을 연행하는 사례로만 다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분석이다. 성전환수술과 재생산 기술(불임클리닉)의 연계는 남녀의 성기 모두를 보유하도록 하는 동시에, 출산을 해부학적 출산과 유전적 출산으로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섹스와 모성의 결합관계의 경우의 수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사회적 구성)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물질)의 관계(구성)를 통해서도 성이 다각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트랜스섹슈얼 주제와 의학 전문가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이들 사이에 놓여 있는 물질과 기술의 정교화를 통해 맺어지는 더욱 다양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3. 인류학에 대한 성전환적 연구

성전환자들, 특히 본 연구에서 트랜스섹슈얼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따라가는 인류학자는 인류학자 자신이 갖고 있는 생물/문화, 섹스/젠더의 이분법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 트랜스섹슈얼들의 목소리와 실천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할 수 있다. 인류학자 역시 기존에 이분되어 왔던 두 영역을 가로지르는 사이보그적 연합을 하지 않고서는 트랜스섹슈얼들을 추적할 수 없으며 그들을 재현하거나 대변할 수도 없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 본 연구에서 인류학의 성전환은 바로 이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극복 방법을 트랜스섹슈얼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왜 다른 분과학문에 비해서 인류학이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연구들은 생물학과 사회과학 간에 그어진 경계를 넘어서 분포하고 있다. 트랜스섹슈얼이라는 대상은 유전학, 내분비학, 해부학, 성형의학, 정신의학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영역에서의 연구와 법학, 사회학, 심리학을 포함하는 사회과학적 영역에서의 연구들 속에 흩어져 있다.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재현이 이러한 학문분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트랜스섹슈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동시에 트랜스섹슈얼을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과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동반한다. 인류학은 이 학문분과 체계 속에 적소를 마련하기보다는 이 학문분과 체계 자체를 연구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영어에서 학문분과(discipline)와 규율(discipline)은 같은 단어이다. 자연과 문화, 생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생물인류학과 사회문화인류학간의 경계는 학문분과가 대상을 채택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데 서로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 서로 다른 규율 혹은 분과들이 분리되어 온 역사를 돌이켜봄으로써 인류학자는 분과 속의 규율된 대상으로서가 아닌, 이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존재로서의 트랜스섹슈얼을 기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다.

다른 학문분과와는 달리, 인류학은 생물인류학과 문화인류학의 구분으로 인해서 하나의 학문분과 내에서 이러한 분단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단의 아픔’은 단순히 생물/문화의 이분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학의 다양한 하위 분야들의 개념들의 이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물학과 사회과학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인간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은 우생학과 나치즘, 인종주의로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Rose 1982). 생물학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평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생산하는 분과학문으로 변모했다. 반면, 사회과학은 인간의 차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Mol 2002: 18). 사회학의 사회 구성주의와 인류학의 문화 상대주의는 생물학적 보편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사회과학과 생물학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인종주의를 예방해 왔다(Latour 1993: 104-105; Mol 2002: 18). 이러한 이원화를 통해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질이 평등하다는 보편론과 결정론 위에서 사회가 구성되고 문화의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다.

몰(Mol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결정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은 젠더 개념만이 아니라, 인류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개념들의 출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에서 인종의 차이는 종족의 차이로 변환되었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변환은 다른 연구 대상으로 확산되어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과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친족은 혈연(blood ties)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아닌 사회문화적 구성물로 사회문화인류학에서 다루어진다. 유기체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했던 의학적 병(disease)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비정상적 기능을 의미하는 의료사회학의 병(illness)으로 다루어진다. 생물학적으로 본질적인 성(sex)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차(gender)로 여성연구에 의해 다루어진다. 사회과학은 친족, 병(illness), 젠더라는 새로운 연구의 대상들을 채택하고 그 대상들에 대한 지식을 생산할 작은 분과들 간의 경계를 그렸다. 특히, 병과 성에 대한 생물/문화의 이분법은 미국에서 진행된 사회과학의 확산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 즉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과 같은 새로운 하위 분과들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국어의 병(病)과 성(性), 그리고 독일어의

‘Krankheit’와 ‘Geschlecht’에서는 미국 영어에서처럼 섹스와 젠더, “disease”와 “illness”를 구분하지 않아 왔다(Mol 2002: 18-21).

하지만, 차이를 말할 수 있는 사회과학의 특권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생물학에 의해 재점령되고 있으며, 사회과학이 인종, 혈연, 병(disease), 성(sex) 자체의 차이들에 대한 분석에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생물학과 사회학의 구분이 더 이상 반인종주의적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종주의자들은 인종적 열등감보다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거나, “그들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단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인종주의자들에게 생물과 문화의 차이는 그 정치적 효과를 상실하고 있다(Barker 1982). 인간 게놈 다양성 프로젝트(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는 “인간의 다양성과 그 기저의 통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연구 목적을 밝히면서 사회과학이 특권으로 지녀왔던 차이에 대한 유전학의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유전학자들과 국제기구들은 ‘인종’이란 범주를 버리고 ‘집단’과 ‘인구’ 카테고리를 채택했다(Reardon 2005: 28-35). 자신의 인종에 속한 사람의 유전자보다 다른 인종의 사람의 유전자와 더 많은 유전적 특질을 공유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인종과 유전학적 집단, 그리고 종족 간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방식의 불일치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했다.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의 한계는 모성과 친족관계의 구성에 대한 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멜라네시아인들은 출산이라는 소위 “자연적 사실”을 사회관계를 지칭하는 이미지로 사용한다. “아들이란 아버지를 낳는 자”,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라는 표현에서 자연과 문화는 구분되지 않는다(Strathern 1992: 56-63). 아버지가 아들을 낳거나

아들이 죽는 생물학 사건과, 아들이 생김으로써 아버지가 되거나 아들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사회적 사건이 멜라네시아인들의 표현에서는 중첩되어 있다. 멜라네시아인들의 말에서 자연/문화의 구별은 ‘서구근대’ 사회의 특수한 범주라는 점이 드러난다. 재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결과는 이러한 구분을 더욱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불임클리닉이 정교화 되면서 한 아이가 유전적 어머니, 해부학적 어머니를 동시에 갖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Caussin 1996). 친족의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재생산 기술을 통한 어머니됨의 다양한 재조합을 통해서 복수의 어머니됨(motherhood)의 집합체를 구성한다. 임신 대리모(gestational surrogate)와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이라는 불임클리닉의 두 시술 방식이 대리모 혹은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사회관계의 변수들과 연결됨으로써 그 연결방식 만큼이나 모성의 실체가 다각화 된다. 예를 들어, 딸을 대리모로 택한 불임클리닉 환자의 사례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머니, 할머니, 이모가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중첩된다(Thompson 2006). 따라서 유일한 자연적 어머니됨과 문화적으로 구성된 어머니됨이라는 이분법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여성연구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정당화 하는 데 여성의 몸을 사용해 왔던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항하기 위해 젠더 개념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인해 섹스를 비정치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나쁜 과학’에 맡겨버렸다(해러웨이 2002). 생물학을 주변화시키기는 했지만 생물학에 도전하지는 못했으며, 섹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생물학을 정신분석학으로 대체하는 데 그쳤다(Hirshauer & Mol 1995). 그 결과, 생물학과 사회과학의 영역들에 걸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욕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트랜스섹슈얼리즘을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는 데 방어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트랜스섹슈얼리즘이 구성되는 실천적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섹스와 젠더간의 다각적인

결합관계를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섹스/젠더를 나누는 빗금의 이미지를 섹스-젠더를 잇는 연결선의 이미지로 변경함으로써 트랜스섹슈얼리즘‘들’의 구성과정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생물/문화 이분법 혹은 섹스/젠더의 이분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겁먹을 만한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이분법이 갖고 있는 학문분과 내에서의 규율권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젠더 개념의 역사성과 차이에 대한 특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회문화 인류학자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과학의 정교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문화,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대상들을 발견하고 채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젠더, 사회, 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다뤄졌던 대상들을 넘어 서야만 트랜스섹슈얼이 섹스의 변형을 통해서, 그리고 불임클리닉에서의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여성이 모성의 재조합을 통해서 연행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 법, 집단, 욕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생물과 문화,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시도에 ‘왜 인류학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인류학은 방법론이나 논리적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대상을 규정하지 않는다. 인류학적 지식 양식(style of knowledge)은 실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획득한 특수한 기술(skills)을 통해서 뒷받침 된다(Descola 2005). 인류학자라면 이 ‘기술’이 무엇인지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처음에 그 기술은 타문화, 즉 다른 사회의 체계와 사상의 조직에 관한 존재론적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학이 타자와 차이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학문분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왜 인류학이 동시대의 타문화, 과거 자문화 속의 타자, 그리고 현대 자문화의 타자화(‘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기’)를 연구 주제로 채택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기와 타자 모두에서 삶의 방식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인류학자였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방식” 혹은 “미래에 나타나게 될 삶의 방식”의 차이와 타자에 대해서도 인류학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의 방식”(emergent form of life)(Fischer 2008)까지를 포괄하기 위해서 분석의 방법을 갱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단순히 타문화를 연구하는 기술이 인류학자의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인류학의 타문화에 대한 관심은 대상-지식(object-knowledge)으로 특징 지워지는 백과사전적 지식이었다.⁷⁾ 하지만, 점차 이러한 시각이 극복되었다. 인류학의 지식이 참여관찰을 통해서 현지에서의 ‘학습’과 현지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관계적 지식”(relational knowledge)(Hastrup 2004)이라는 자각이다. 인류학이 제안하는 타문화의 존재론은 인류학자의 경험 속에 위치 지워진(located)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은 기록되었지만 다른 것은 침묵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지식은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관계적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즉 인류학적 지식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결부되었다는 것, 나아가 사람과 사물들의 관계에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다. 그리고 ‘현지와의 대화’를 하는 기술(skills)을 통해서 그 기술 자체를 갱신한다는 점에서 ‘대화적 현지’를 인류학적 지식 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핵심에 두고 있다.

인류학자는 현지에서 트랜스섹슈얼과 관계를 맺는다. 인류학자는 섹스/젠더, 생물/문화의 이분법을 통해서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자들이다. 인류학자 자신이 현지에 들어가기 전부터 갖고 있는 전제, 틀, 개념, 이미지, 취향, 감정을 트랜스섹슈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한계를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기

7) ‘대상-지식’은 지식이 대상을 규정하는 지식 스타일을 말한다. 대상은 미리 주어진 모델에 따라서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합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상의 목소리는 모델과 요소를 통해서만 기록된다(Hastrup 2004). 반면, 인류학자는 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설, 개념, 전제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과 감정을 성찰하고 변화 시킴으로써 관계 속에 현지의 목소리를 위치시키는 동시에 연구 기술을 갱신한다.

존의 틀에 의해 나뉘어져 있는 여러 공간들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트랜스섹슈얼적인 삶으로부터 인류학의 성전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지도 모른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생물/문화 이분법에 의해 구축된 인식론 대신 현지에서의 실천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연합과 그 존재론을 기술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근대 학문분과 체계를 배제하는 동시에 사회적 행위자와 물리적 행위자의 구별까지 배제하고 있다. 그 대신, 장소, 사건, 사물의 배치의 차이, 인간과 비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구성되는 행위의 차이를 민족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⁸⁾ 성전환자들 역시 규율된 성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다. 이들을 따라 걷는 인류학자 역시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들기 위해서, 물질과 기술을 성전환자들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분과학문 속에 주어진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트랜스섹슈얼’이 보여주는 것

웅(Aihwa Ong)에 따르면, 접두사 “trans-”는 무언가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을 통과하거나 선들을 가로지르는 것,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변형’(transformation, transfiguration), ‘초월하다’(transcend)와 같은 단어가 그 예이다. 더 구체적으로, 문화와 정치경

8) 인식론을 배제하고 철저히 사건, 사물, 장소의 실천으로 행위와 대상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몰은 ‘실천지’(praxiography)(Mol 2002)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건, 사물,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행위자의 정체성이 연행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방법으로 ‘존재론적 안무’(ontological choreography)(Causin 1996)를 들 수 있다. 라투르는 행위가 인간과 비인간의 연합임을 제시하는 동시에(Latour 1987), 생물/문화, 자연/사회, 전근대/근대의 이분법이 철저히 서구의 재현방식이라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Latour 1993). 지면상의 문제로 근대학문분과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은 다른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제의 논리에 의해 유발되거나 통제되는 행동이나 이미지의 ‘거래’(transaction), ‘침해’(transgression)들을 포괄하고 있다(Ong 1999). 초국가성(transnationality)을 다룬 옹의 책에서 사용되는 ‘트랜스’의 용례는 본 연구의 트랜스섹슈얼과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 트랜스섹슈얼의 삶의 방식은 ‘문화’ 혹은 ‘사회’의 장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젠더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섹스’의 밖에 있는 물질 자체 및 인간과 비인간을 매개하는 기술과의 연결을 통해서 트랜스섹슈얼리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생물학적인 섹스는 문화적인 섹스 혹은 젠더보다 더 심층 혹은 하위에 있는 별도의 ‘수준’이 아니다. 문화와 생물은 같은 ‘수준’에 나란히 놓여 있으면서 그 양요소들 간의 복잡한 조합과 배치를 통해 트랜스섹슈얼이 자신의 정체성을 연행하는 데 동원되었다.

둘째, 트랜스섹슈얼의 삶의 방식이 생물-문화를 연결하는 다각적인 실체들과 그 연결방식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 혹은 생물 중 어느 하나의 ‘논리’로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물-문화의 연결은 트랜스섹슈얼 개인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합되어 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추구하는 FTM부터, 양성의 성기를 모두 갖고 있는 동성애 FTM 쉬매일, 레즈비언-페미니스트 MTF, IVF를 통해 임신한 FTM 유부남 쉬매일까지 섹스-젠더 혹은 생물-문화의 다각적인 결합관계가 ‘트랜스섹슈얼리즘’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해, ‘F’와 ‘M’이라는 두 용어로 트랜스섹슈얼리즘을 명명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동시에, 젠더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섹스 역시 태어나면서 주어지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리”의 외부에 위치하거나 “논리”에 저항하는 사례들이 범람하고 있다.

트랜스섹슈얼을 ‘문화적’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시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로 다루는 연구의 한

계는 명확하다. 대신, 생물-문화 간의 연결을 통해서 구성된 다중적인 실체들의 실재를 경험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실체들에 대한 존재론들(ontologies)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남성과 여성의 두 극을 전제하고 그 사이 어딘가에 트랜스젠더 혹은 트랜스섹슈얼이 있다는 이미지로부터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성의 인류학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트랜스섹슈얼을 재현하고 대변하는 인류학자는 ‘전형적인 남성’과 ‘전형적인 여성’을 트랜스섹슈얼들 중에 특수한 생물-문화, 남성-여성의 조합의 사건으로서 기술할 수도 있다. 후자에서, 트랜스섹슈얼은 남성과 여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예외적인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전형적인’ 혹은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이 다양한 트랜스섹슈얼들 중에서 특수한 사례로 기술된다. 왜 이러한 남성과 여성에게 ‘전형적인’ 혹은 ‘정상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된다.

기존의 트랜스에 대한 연구는 주어진 경계를 넘나드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었다. 이미 주어진 경계는 배경 혹은 맥락 또는 행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통제하는 힘으로 처리되었다. 트랜스젠더가 경계를 ‘흐려지게 한다’는 은유 역시 경계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반면, 트랜스섹슈얼의 존재론을 쓰는 민족지는 행위자들의 다양한 존재론을 기술한 다음 경계에 의해 제한되거나 움직여지는 자들, 조금은 영향을 받는 자들 혹은 전혀 경계와 상관없는 자들 모두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다가가기 위해 분투하는 FTM과, ‘레즈비언’이면서 인공수정을 통해 모성과 모권을 주장하는 쉬매일 FTM 간에는 경계, 범주, ‘지배적’ 담론이 미치는 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자의 문화 구성주의적 시각에 불쾌해 하는 트랜스섹슈얼들,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인해 고통 받는 트랜스섹슈얼들에게 다양한 존재 방식을 기술하는 인류학 민족지는 트랜스섹슈얼의 정치적 투쟁에 유리하게 이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학은 트랜스섹슈얼 ‘인류’(anthropos)

의 실천들을 잘 추적하고 있는가. 트랜스섹슈얼은 생물과 문화의 분리
에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생물인류학자와 문화인류학자만이 스스로
그려낸 경계 앞에서 서로 멈춰서고 있을 뿐이다.

논문접수일: 2012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2012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0일

참고문헌

버틀러, 주디스

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운상 옮김, 고양: 인간사랑.

루빈, 헨리 S.

2004 『(성전환자)남성처럼 글 읽기』 톰 디그비 엮음, 『남성 페미니스트』,
김고연주·이장원 옮김. 서울: 또하나의문화.

소위키, 지나

1995 『재생산 기술: 어머니 길들이기』,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
와 페미니즘』 황정미 편역, 서울: 새물결.

푸코, 미셸

1994 『성의 역사: 앎의 의지』, 이규현 옮김, 서울: 나남.

해러웨이, 다나

2002 『마르크시즘 사전 속의 ‘젠더’: 한 단어의 성정치학』, 『유인원, 사
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옮김. 서울: 동문선.

Barker, Martin

1982 *The New Racism*. London: Junction Books.

Blackwood, Evelyn

2006 “Tombois in West Sumatra: Constructing Masculinity and
Erotic Desire,” In Lewin Ellen, ed., *Feminist Anthropology: A*

Reader. Malden, MA: Blackwell.

Boellstorff, Tom

- 2004 "Playing Back the Nation: Waria, Indonesian Transvestites," *Cultural Anthropology* 19(2):159-195
- 2007 "Queer Studies in the House of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6(1):17-35.

Bolin, Anne

- 1987 "Transsexuals and Caretakers Power and Deceit in Intergroup Relations," *City & Society* 1(1):64-79.

Butler, Judith P.

- 2006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London: Routledge.

Califia-Rice, Patrick.

- 2003 *Sex Changes: The Politics of Transgenderism*. San Francisco: Cleis Press. Ch. 7

Caussin, Chris.

- 1996 "Ontological Choreography," *Social Studies of Science* 26: 575-610.

Denzin Norman K.

- 1990 "Harold and Agnes: A Feminist Narrative Undoing" *Sociological Theory* 8(2): 198-216

Descola, Philippe

- 2005 "Social Anthropology," *Social Anthropology* 13(1): 65-73

Downey, G. L. and Dumit, J.

- 1997 *Cyborgs & Citadels: Anthropological Interventions in Emerging Sciences and Technologies*. Santa Fe, New Mexico: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Dumit, Joseph

- 1997 "A Digital Image of the Category of the Person," in Gary Lee Downey and Joseph Dumit, eds., *Cyborg & Citadels: Anthro-*

- ological Inventions in Emerging Sciences and Technologies*,
Santa Fe, New Mexico: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pp. 83-102.
- 2004 *Picturing Personhood: Brain Scans and Biomedical Identity*,
Princeton, N.J.,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scher, Michael M. J.
- 2008 “Four Genealogies for a Recombinant Anthrop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al Anthropology* 22(4): 539-615.
- Friedman, R. C., Green R., Spitzer R. L.
- 1976 “Reassessment of Homosexuality and Transsexualism,” *Annual
Review of Medicine* 27(1): 57-62.
- Goffman, E.
- 1971[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Harmondsworth,
U.K.: Penguin.
- Haraway, D.
- 1989 “Teddy Bear Patriarchy: Taxidermy in the Garden of Eden,
New York City, 1908-36,” in Donna J. Haraway, ed., *Primate
Visions: Gender, Race, and Nature in the World of Modern
Science*, London: Blackwell Publishing, pp. 26-58.
- 1991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Simians, Cyborg,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London: Routledge,
pp. 149-181.
- 1997 “Mice into Wormholes,” in Gary Lee Downey and Joseph
Dumit, eds., *Cyborg & Citadels: Anthropological Inventions in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ies*. Santa Fe, New Mexico: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pp. 209-244.
- Hastrup, Kirsten
- 2004 “Getting it right: Knowledge and evidence in anthropology,”
Anthropological Theory 4(4): 455-472.

Hausman, Bernice L.

1995 *Changing Sex: Transsexualism, Technology, and the Idea of Gender*, Durham and London: Duke Univ. Press.

Herd, Gilbert

1990 "Mistaken Gender: 5-Alpha Reductase Hermaphroditism and Biological Reductionism in Sexual Identity Reconsidered," *American Anthropologist* 92(2): 433-446.

Herd, Gilbert (ed.)

1994 *Third Sex/Third Gender: Beyond Sexual Dimorphism in Cultural and History*, New York: Zone Books.

Herd, Gilbert and Robert J. Stoller

1985 "Sakulambai - A Hermaphrodite's Secret: An Example of Clinical Ethnography," *Psychoanalytic Study of Society* 11: 117-158.

Hirschauer, S.

1998 "Performing Sexes and Genders in Medical Practices," *Differences in medicine: Unraveling practices, techniques, and Bodies*, Durham: Duke Univ. Press

Hirschauer, S. and A. Mol

1995 "Shifting Sexes, Moving Stories: Feminist/Constructivist Dialogues,"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20(3): 368-385.

Hubschman, Lynn

1999 *Transsexuals: Life From Both Sides*, Diane Publishing.

Kane-Demios, J. and B. V. L. Ari (eds.)

2006 *Crossing Sexual Boundaries: Transgender Journeys, Uncharted Paths*, Amherst, N, Y: Prometheus Books.

Latour, Bruno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Law, John
- 1991 *Sociology of Monsters: Essays on Power, Technology, and Domin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Meyerowitz, Joanne
- 2002 *How Sex Changed: A History of Transsexualit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S: Harvard Univ. Press.
- Millot, Catherine
- 1990 *Horsexe: Essay on Transsexuality*, New York: Autonomedia.
- Mol, Annemarie
- 2002 *The Body Multiple: Ontology in Medical Practice*, Durham: Duke Univ. Press.
- Ong, A.
-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 Press.
- Peletz, Michael G.
- 2006 “Transgenderism and Gender Pluralism in Southeast Asia since Early Modern Times,” *Current Anthropology* 47(2): 309-340.
- Rapp, R.
- 1997 “Real-time fetus: The role of the sonogram in the age of monitored reproduction,” in Gary Lee Downey and Joseph Dumit, eds., *Cyborg & Citadels: Anthropological Inventions in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ies*, Santa Fe, New Mexico: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pp. 31-48.
- 2000 *Testing Women, Testing the Fetus: The Social Impact of Amniocentesis in America*, New York: Routledge.
- Raymond, Janice G.
- 1979 *Transsexual Empire: The Making of the She-Male*, Boston: Beacon Press.

Reardon, Jenny

2005 *Race to the Finish: Identity and Governance in an Age of Ge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Rose, S., ed.

1982 *Against Biological Determinism*, London: Allison and Busby.

Rubin, G. and J. Butler

1994 "Sexual Traffic,"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6(2&3): 62-99.

Strathern, Marilyn

1992 *After Nature: English Kinship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pson, Charis

2006[2001] "Strategic Naturalizing: Kinship in a Infertility Clinic," In Lewin Ellen, ed., *Feminist Anthropology*, Malden, MA: Blackwell.

Williams, Walter L.

1992 "Neither Man nor Woman: The Hijras of India, Serena Nanda," *American Ethnologist* 19(4): 826-827.

Yudkin, Marcia

1978 "Transsexualism and Women: A Critic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4: 97-106.

<자료>

The Advocate, "Labor of Love: Is society ready for this pregnant husband?" April 8, 2008.

〈Key concepts〉: sex change, cyborg, transsexualism, technology, sex, gender, biology/culture dichotomy

Gender and Transsexualism:

Anthropology of Changing Sex, Changing Sex of Anthropology

Lee, Kangwon*

What I want to do in the present work is to show how can transsexualism and anthropology inform and strengthen one another. When social/cultural anthropologists and cultural feminists add the term ‘gender’ to some phenomenon, such as motherhood, kinship, division of labor and identity they designate a bundle of ties that may mobilized to account for relationship among human actors. Problem rises, however, when the ‘bundle of ties’ begins to mean a type of material, especially in the case of a sex change or transsexuals. I address this question in the form of a review of transgenderism and transsexualism in the study of anthropology. Instead of taking sex as a characteristic of individuals, transsexualism as a way of life mobilize it as something performed locally in ways that vary from one situation to another. For transsexuals,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 ‘level’ that may divide sex into two parts, biological/cultural or sex/gender. They cross the borders of the

* Researcher, Institute of 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iplines among genomics, endocrinology, anatomy, plastic surgery, psychiatry, psychology, law, and politics, connecting not only to humans but also to different materials. From this point of view, I suggest that biological and cultural factors are coordinated on the same plate in making different arrangements, which transsexuals mobilize to perform their sex-gender identities. Tracing this performance offers anthropologists an interest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opportunity and a chance to turn away from the traditional dichotomy between biology and culture. For transsexuals, reading and writing an ethnography of their own construction of sexes opens up new political spaces and strategies to cross both the borders of female-male and of natural-cultural.

